



## 02 임상증상

**임상증상** : 발열, 피로감, 식욕저하, 소화기 증상, 림프절  
증창, 출혈증상

**잠복기** : 6일~2주

**치사율** : 12~30%

■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혈소판 감소(10만/mm<sup>3</sup> 미만), 백혈구 감소(4000/mm<sup>3</sup> 미만), 혈청 전해질 이상 (지나트륨혈증, 저칼슘혈증), 혈청효소이상(AST, ALT, LDH, CK 상승), 소변검사 이상(단백뇨, 혈뇨) 등의 중증 증상이 나타납니다.  
반드시 의료기관의 확인진단이 필요합니다.

■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 
치료법을 시행합니다.

■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며,  
의료인의 경우 감염자의 혈액, 체액, 배설물과 직접  
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.

■ 주로 매개 진드기에 물려 전파(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 
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)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  
환자의 혈액·체액에 의한 접촉감염도 보고되고 있습  
니다.

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 
알려진 감염병의 일종으로 출혈성 감염병인 신증후군  
출혈열과 유사하나, 매개체인 진드기가 활동적인 봄부터  
가을까지 주로 발생하고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 
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.

## 03 진드기 예방법

■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(수풀, 나무 우거진 곳 등) 지역  
에서 활동 할 때에는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착용하고,  
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어 이동해야  
합니다.

■ 근처의 식물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길의  
중앙으로 건도록 합니다.

■ 수풀 등에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주의  
깊게 관찰해야 합니다. 귀가 후 2시간 내에 온몸을  
씻고 거울을 이용하여 꼼꼼히 확인합니다.

■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 
허리 주위, 무릎 뒤, 다리사이 등을 꼼꼼히 살펴주세요.

■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진드기 확인과 제거에 쉬우  
므로 밝은 색 옷을 착용합니다.

■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해충기피제를 적절히 사용해  
줍니다.



(Source: KCDC, US CDC)

## 01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를 의심해야 하나요?

■ 38℃ 이상의 발열과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혈소판과 백혈구가  
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 
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확정 진단은 바이러스 검사를  
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
## 02 어떤 환자를 신고해야 하나요?

■ 환자 : SFTS 바이러스 분리 등정 또는 SFT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자  
■ 의사환자 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
- 38℃ 이상의 발열  
- 소화기 증상(구토, 설사 등)  
-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(10만/mm<sup>3</sup> 미만), 백혈구 감소(4000/mm<sup>3</sup> 미만)  
-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사망사례  
-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

## 03 어떻게 신고하나요?

■ 감염병웹신고시스템(<http://is.cdc.go.kr>)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  
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.  
※ 제4군 신증후군출혈열을 선택하고 [증상및징후란]에 중증열성혈  
소판감소증후군 입력  
■ 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진단한 경우나 사체를 검안하였거나 사망한 경  
우의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합니다.

## 04 확인진단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?

■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 
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검체(혈청)를 국립보건  
연구원 신증후군바이러스과로 의뢰하여 확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05 환자를 다룰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까?

■ 중국에서는 환자 혈액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원인으로 고려하고  
있어 접촉격리(Contact precautions)를 해야 합니다. 비말감염이나  
공기로 인한 감염은 보고되지 않아 이외 별도의 격리는 고려하지  
않습니다.

## 06 환자가 진드기에 물린 상태로 병원에 온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■ 진드기 종 확인검사를 위해 교상환자로부터 채집된 진드기는 환자의  
혈액검체와 함께 보건소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매개곤충과로  
의뢰하도록 합니다.